

강진 피싱마스터스 대회, 마량경제 활력소 역할 ‘톡톡’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 주도…대표 해양 레저 콘텐츠

강진원 군수 “강진서 다양한 소비…경제 선순환구조”

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가 전국 낚시객들의 관심을 끌면서 마량면에 또 하나의 경제활력소로 자리잡았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는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바다낚시 어선 유치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전국바다낚시대회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2024년 강진피싱마스터스 브랜드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만의 고유 낚시대회 브랜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시상금이다. 매년 대회 시상금 규모는 총 2억원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30위까지 시상금을 주는 이점이 있다. 이는 대회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하며, 참가자들의 경쟁 의욕과 대회 참여도를 크게 높여 주는 요

소로 평가된다.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는 현재까지 총 5회 열렸다. 5일간 관광객 6190여명, 참가자 863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청 자료를 보면 참가자 대부분이 가족·지인 등 동행 인원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며, 참가자의 약 25%는 강진에서 숙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일부 일정이 기상 여건으로 취소된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참가자와 동행 인원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참가자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강진 피싱마스터스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 상승, 재방문을 확대, 가족·지인 중심의 체류형 관광 수요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강진피싱마스터스대회의 파급력은 지



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 참가자들이 대회가 끝난 뒤 한 자리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역경제를 넘어 주변 낚시 문화와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강진을 중심으로 지역 낚시대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상금 규모가 커지는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진피싱마스터스대회의 또 다른 특징

은 낚시업계와 어선업체가 함께 동참한다는 점이다. 낚시 장비 브랜드 ‘시마노’, ‘아오맥스’를 비롯해 어선·항해 관련 분야의 ‘혼다’, ‘SDN’, ‘화웨이’ 등 다양한 업체에서 대회 후원과 협찬 지원에 대회 운영에 참여했다.

이처럼 강진피싱마스터스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경제·해양 레저산업·관광소비를 아우르는 복합형 경제 파급 행사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전국의 강태공들이 강진 마량을 찾아와 낚시대회에 참가하고 함

께 온 지인들 역시 강진에서 다양한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완벽한 대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진도청정 농수산물, 일본 시장 진출

군, 100만달러 수출협약…진도 가치 홍보 강화

진도군은 최근 재일본큐슈한국인 연합회와 ‘진도청정 농수산물 수출협약식’을 열고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00만달러 규모의 진도 농수산물이 수출될 예정이며, 진도군은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진도군은 협약식에 앞서 큐슈한국인연합회 임원진을 초청해 진도 농수산물 생산 현장을 소개하며, 진도군

농수산물의 품질과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전복과 미역, 곱창김, 쌀 등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확정하며, 일본 현지 유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일본큐슈한국인연합회는 “진도 농수산물의 수출뿐 아니라, 진도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것에도 힘써 진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진도군은 최근 재일본큐슈한국인연합회와 ‘진도청정 농수산물 수출협약식’을 열고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해남문예어울림센터’ 건립

이달 착공·내년 10월 개관

창작공간 등 625.85㎡ 규모

해남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허브가 될 해남문예어울림센터가 조성된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창작 허브를 구축하고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40억원을 투입해 해남문예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해남문예어울림센터는 건축규모 625.85㎡, 2층 신축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 전용공간과 창작활동 시 일상생활과 숙박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공유 주방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2026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이번 달 착공할 예정이다.

해남문예어울림센터가 조성되면 현재 운영중인 문학레지던시 ‘백련재’와 공립 문학관인 땅끝순례문학관의 문학적 기반 위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창작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고산 윤선도 유적지가 소재한 연동리 일원은 녹우당과 백련재,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 땅끝순례문학관 등 전통미를 살린 한옥 건물이 밀집해 지역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면서 예술인들에게 창작 영감을 주는 예술적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중견 예술가는 물론 잠재력 있는 청년 예술가를 적극 유치해 지역 문화에

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해남을 대한민국 남도예술 창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문예어울림센터는 백련재 문학의 집과 연계해 해남만의 고유한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다”며 “지역 주민에게는 새로운 문화 향유 공간을, 예술가에게는 최적의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창작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무안, 재난의료 대응 공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무안군은 최근 재난응급의료 대응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난응급의료 대응업무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표창에 대해 “재난 발생 현장에서의 응급의료 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에 기여한 점,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공적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대응 프로세스와 협업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유관 기관과 공유하는 등 재난 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표창은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모든 구상원의 헌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응급의료 제공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인력 교육 강화, 협력 기관과의 공동 훈련 확대 등을 통해 재난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2123@



환자의 몸은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막혀버린 흐름, 미세한 변화
환자의 몸은 수액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습니까?
아이링거는 그 들리지 않는 대화를 데이터로 번역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역가입니다.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 42 (오션동)
본사 Tel. 062-954-0627 Fax. 062-954-0620
연구소 Tel. 062-972-0629 Fax. 062-972-0629